

錄 取 錄

서 문

녹 취 일 자	2023년 12월 19일
녹 취 장 소	통 화 녹 음
대 화 자 명	①정성훈 ②이상열
의 례 인	정성훈
번 문 장 소	AB속기사무소
청 취 불 능	**으로 표시 【말줄임은 .. 으로 표시】

본 문서의 일시·장소·참석자명은 의뢰인의 제시정보에 근거하며, 본 문서는 제시자료의 내용과 동일하며, 속기사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이해력 향상을 위한 불필요한 어구 첨삭, 어순 정리 등은 속기사의 재량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01월 02일

국가 공인 1급 속기사 이영신(인)
(10-G2-000063)

AB속기사무소(인)
(693-99-00655)

- 시작 -

- ◆ 정성훈 여보세요?
- ◆ 이상열 응, 그래. 성훈아.
- ◆ 정성훈 아, 네. 상열 형님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?
- ◆ 이상열 어. 가능해.
- ◆ 정성훈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여쭙볼 게 있어서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그 석모도에 있을 때 있잖아요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제가 민규랑 주용 형이랑 다 물어봤는데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그 혹시 제가 잤을 때 바지를 입고 잤거든요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근데 주용 형이 이제 팬티가 찢어질 때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팬티만 입은 채로 찢어졌다고 하는데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그러면 이제 바지를 누가 벗겼어요? 그 당시에?
- ◆ 이상열 그건 나도 모르겠네.
- ◆ 정성훈 그래요? 그거..

- ◆ 이상열 애들 뭐 다 기억 못하지. 다 모르지. 그거는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?
- ◆ 정성훈 근데 이제 팬티만.. 팬티를 찢은 거는 그럼 기억은 하세요? 그 상황은?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제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팬티를 들어올린 거예요? 아니면 두 손으로 뭐 찢은 거예요?
- ◆ 이상열 아니 이게 저기 누워 잤잖아.
- ◆ 정성훈 네.
- ◆ 이상열 그러니까 자지 마라고 엉덩이를 승훈이는 "엉덩이, 일어나라" 그거 있잖아. 일어나라고.
- ◆ 정성훈 네.
- ◆ 이상열 때리면서 그러니까 니가 막 이제 그러니까 뭐지? 그런 상태에서 있으니까 니가 깰잖아. 깨갓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다시 이제 막.. 그러니까 이제 안 일어나니까 당기면서 하다 보니 닌 손으로 잡아 올리고, 니가.
- ◆ 정성훈 네.
- ◆ 이상열 승훈이는 이제 당기고 하니까. 나는 당기고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쪽 찢어진 거야. 그래서.
- ◆ 정성훈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나요. 왜냐면 그때..
- ◆ 이상열 그러니까 승훈이가 자꾸 막 당기고 막 하니까 나는 팬티 안 벗길려 지려고 위로 잡아당기잖아. 잡고 있었고. 승훈이는 밑에서 당기고.
- ◆ 정성훈 그러면.. 그러면 이제 그 추형이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당긴 거예요? 저는 기억이 안 나요.
- ◆ 이상열 나도 그래가지고
- ◆ 정성훈 근데 바지를 제가 분명히 입고 잤는데 제가 팬티만 그렇게 당기려면



바지를 누가 벗긴 거잖아요. 그럼 이제 민규도 아마 자기도 형이 입고
잔 걸로 기억하고 형이 벗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. 벗긴 사람이 있을
것 같은데 그 벗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어요.
자기도 취해가지고.

- ◆ **이상열** 다들 기억 못하지. 사실 그 입었는지 없는지 그거 다 기억 못하지, 우
리가.
- ◆ **정성훈** 근데 팬티만 입고 있었다는 거는 기억을 또 하더라고요. 주용 형은. 그
래서 누군가 바지 벗긴 거는 맞을 거라고.
- ◆ **이상열** 그때는 확실하게 그때 우리 전부 다 더워가지고. 추운 날이었지. 근데
방은 더웠잖아. 더워가지고. 그때 더웠거든, 방은.
- ◆ **정성훈** 네.
- ◆ **이상열** 뜨거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막 그래 있었는데.
- ◆ **정성훈** 제가 그날 사진을 보니까 제가 위에는 경량패딩을 입었고 밑에는 추리
닝을 입었었어요.
- ◆ **이상열** 음.
- ◆ **정성훈** 그래서 제가 더워서 옷을 벗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것도 바지를.
왜냐면 제가..
- ◆ **이상열** 수현이한테도 물어봤어?
- ◆ **정성훈** 아니요. 수현이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수현이 형은 저번에 물어보니까
자기는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대요.
- ◆ **이상열** 나도 그거는 기억 못하지. 나도. 그건 기억이 안 나지.
- ◆ **정성훈** 아, 그래요?
- ◆ **이상열** 나도 그거는.



- ◆ 정성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이불을 다 개고 옷 갈아입다가 사람들이 웃으니까 제가 뒤돌아봐가지고 그때 팬티가 이제 찢어진 걸 인지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?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민규도 그렇다고 하고.
- ◆ 이상열 어.
- ◆ 정성훈 상열 형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?
- ◆ 이상열 나는?
- ◆ 정성훈 네.
- ◆ 이상열 그냥 잡아당기고 당길 때 그때 찢어졌잖아.
- ◆ 정성훈 아니. 아니. 찢어진 거 말고. 제가 그 팬티가 찢어졌다는 걸 인지했을 때가..
- ◆ 이상열 기억이 안 나. 그거는.
- ◆ 정성훈 전 그게 아침이거든요.
- ◆ 이상열 그건 또 기억이 안 나.
- ◆ 정성훈 아. 그건 기억이 안 나요?
- ◆ 이상열 안 나.
- ◆ 정성훈 아. 이게 사람마다 기억하는 부분이 좀 다르구나.
- ◆ 이상열 다르지. 다 다르지.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.
- ◆ 정성훈 네. 주용 형은 또 제가 서로 당기다가 아니라 제가 시체처럼 자고 있을 때 저 일어나라고 팬티를 위로 이게 잡아들었는데 찢어졌다는 식으로 얘기하고, 상열 형이.. 네.
- ◆ 이상열 내가 알기로는 확실한 게..



- ◆ 정성훈 네.
- ◆ 이상열 맞아. 니가 당기니까, 승훈이는 들어 당기니까 니는 잡아들고 가다가 서로 당기다가 그냥 짝 찢어진 거 내가 알거든. 그건 기억하거든.
- ◆ 정성훈 아, 그래요? 아.
- ◆ 이상열 어. 내가 그건 기억하고 있다.
- ◆ 정성훈 아, 그래요? 아, 네. 저는 근데 그때 필름이 끊겨서 만취한 চে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.
- ◆ 이상열 응.
- ◆ 정성훈 이게 조금..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라도 하면 제 기억으로 사실 이거를 쓰면 되는데 남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.
- ◆ 이상열 그러니까 이게 참, 그래. 그래서 이게 그런 거야. 본인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서.
- ◆ 정성훈 근데 만취한 상태고 또 그 당시에 저한테 계속 술을 강권했던 말이에요. 이거는 민규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해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팬티 찢어진 그거는 제 기억이 아예 없어요. 아예 그냥 필름 끊겨서. 제가 어머니랑 있어가지고. 제가..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.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.

- 종료 -

(이상 끝)